

도시 환경문제 대응책으로 도시숲 조성 확산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2020. 4. 2.

충청북도 산림복지과
2020. 4. 8.

세종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2020. 5. 10.

충청북도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녹색쌔미숲



명상숲

출처: 충청북도, (2020).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충.
4월 8일자 보도자료

충청남도, 도심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공기질 개선과 도시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데다 전국 노후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도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개 시·군 5곳(14.9ha)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세부 대상지는 ▲아산 둔포산업단지 ▲서산시 대죽·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도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침강·차단하고, 발생원 주변에 다열·복층 구조로 혼효림을 조성해 주거지역 유입·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도시공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확충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15곳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물 사이 등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녹색쌔미숲' 3곳,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생활환경숲' 2곳, 학교와 그 주변 공간에 조성되는 '명상숲(학교숲)' 1곳이 새로 들어선다.

또 생활권 주변 지역의 산림과 큰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는 '산림공원'도 진천군에 조성된다. 이 밖에 충주시와 보은군 일대 등 5곳에 가로수 식재를 진행하며, 청주시·진천군·단양군 일대 도로변을 활용해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명품가로숲길'도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세종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도심 내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는 도심 외곽의 산림을 정비하고 수종을 갱신해 '바람 생성숲'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생성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천 및 주요 도로 주변에 '연결숲'을 조성한다. 도심 내부에는 유입된 찬바람이 확산되는 '디딤숲'과 '확산숲'이 조성되며,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생활권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는 '차단숲'도 들어선다.

시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공원·녹지 등과 도시 외곽의 산림을 연결,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